"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 이종윤 원로목사

독일의 종교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1904-5년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서적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특히 칼빈주의적 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이 발표된 후 많은 비판의 글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베버의 논제를 지지하고 있다.

베버에 의하면 프로테스탄트의 직업관과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선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직자나 수도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업(beruf)이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으로 보고, 칼빈은 루터의 직업관념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소명인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라 보고 일에 눈가림하지 않고 부지런히 전념할 것을 가르쳤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거나 유기되는 것이 내 행위의 열매(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로서, 경건하게 살고 절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 세상에서 성실성과 자기 욕심을 버리고 금욕주의적 정신으로 살게 됨으로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의 지주가 되어 오늘의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베버는 설명한다.

칼빈은 당시 재세례파들의 공산주의적 가르침에 대항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강조했다. 재세례파 사람들은 재산의 공유가 참된 교회의 필수적 표지라 보고 그들의 그 근거를 사도행전 2:44-45에서 찾고 있었다. 재산의 공유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았다. 물질은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고로 하나님을 닮는 길은 물질을 버리는 길이라 했다. 이들은 실제로 공산주의적 공동체를 건설하고 있었다.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 전형적인 이 공동체가 있었다. 재산공유 뿐 아니라 노동에도 함께 참여했다. 자기 일을 자신이 아닌 공동체가 결정해 주었다. 미혼자는 공동 숙식을 했고 자녀 교육도 공동체가 했다. 이로써 하나님 아래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어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예루살렘 교회가 재산을 공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한 것에 반해 사유재산도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임을 성경은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범죄한 후 탐욕에 빠져 하나님은 각자의 몫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다. 재세례파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발로로 본데 반해, 칼빈은 타락한 인간을 견제하기 위해 정하신 신적 제도라고 보았다. 칼빈은 재산의 공유를 비판하면서 그럴 경우 그리스도인이 자선을 베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재산의 불평등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으로, 부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고 도와주는 일을 하게 함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일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했다. 재산의 불평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신앙을 시험하고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으로 재산을 공유함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칼빈은 재산을 공유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나태함을 비판했고, 인간은 일하도록 창조 되었으므로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자제도를 금지한 니케아 교회 회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자제도를 인정하고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나 부유층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칼빈은 사랑의 자선에 의해 가난한 자들이 보호받는 사회를 지향했다. 칼빈은 중세 사회에서 근세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자본주의 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도와줌과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경제적 불평등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자본주의 사회 또는 산업사회의 예언자라 말할 수 있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우리나라 어느 재벌총수가 돈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착각하고 세 자녀를 둔 본처와 이혼을 하고 혼외 자녀를 둔 유부녀와 재혼하겠다는 선언은 기독교윤리에 반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업을 경영해야 하는 신자로서 탈성경적 행태를 한 것임으로 그는 하나님과 세상의 심판을 받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탈한 자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라 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1492호] 2016년 2월 6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chan Yoo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Col 3:1-4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ings Above"	Pastor
* Hymn	377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선 교 사 강아곱·주한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버컷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아 망, 탕, 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싼다, 사우, 키옴,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옹,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제28권 제8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8년 2월25일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그리스도의 자취 "

■ 벧전 2:11~25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 이웃들로부터 심한 배척과 비방을 당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불신자 이웃들까지도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1.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중하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들의 지위와 인종과 성별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예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을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18절) 범사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스스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자기 시대의 인간관으로 교회가 잠식될 때도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지위가 있었고, 그 지위마다 주어진 역할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여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요,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한국교회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방식

베드로 사도는 부당한 권위를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의 방식으로 응답하라고 말합니다.(12절)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불신자에게 선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왕과 총독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권위를 남용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황제와 총독들을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비유하며 실제로 세상에는 짐승과 같은 왕과 총독들이 많음을 말하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으로 저들을 잠재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의 방식으로 저들에게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방식이란 아무런 말도 없이 착하고 선하게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한 삶의 방식이란 복음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누구라도 복음의 가치관에 따르는 삶에 대해 양보나 포기를 요구할 때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삶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러한 선한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까다로운 주인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에 인내할 수 있다면,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맺는 말

올바른 권위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신앙공동체 속에서의 올바른 권위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권위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권위는 하나님 사역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내의 많은 갈등은 권위 때문에 일어납니다.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소명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에 대항하다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악에게 저항하다가 더욱 중요한 것을 내주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위기들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당했던 위기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서울교회를 만드시기 위해 어딘가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고난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되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고난에 패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정성국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양춘경 장로
Ⅱ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하인선 장로
Ⅲ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오광환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마 16:24-2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125(사순절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맡 은 이
	찬 송 Hymn ……25(2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25:14-30…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	정성국 목사
*	찬 송 Hymn ……390(44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 약 1:12 ……	인 도 자
	찬 송 …… 144(144) ……	다 함 께
	기 도	한상준 집사
	성 경 …… 계14:6-13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지금이 어느때인가?" …	설 교 자
*	찬 송 …… 312(341) ……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백영자 권사
	성 경 …… 삼상 18:17-29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나를 위해서 어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벧전 2:25)		
수요Ⅰ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선교회, 전도회 회장단 모임 / 25일(주) 오후 1시 2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노선균(흉부외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4. 정성국 목사 소개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B.A.)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Ph.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 결 혼

1. 박중희 군(박권목 성도, 김병숙 성도의 장남)과 박진경 양(1교구 박찬성 집사, 심명숙 권사의 장녀) /
   3월3일(토) 오후12시 성락성결교회 2층 성산홀(467-8105) / 2호선 성수역 1번 출구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09명	264명	338명	1,511명	172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2/1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2월 18일	헌 금	31,409,070	
"	특별예배비		765,680
	찬양운영비		892,500
"	교회학교운영비		420,000
	선 교 비		300,000
	행 사 회		134,860
	구 제 비		400,000
"	출 판 비		270,000
	인 건 비		12,881,000
	차량유지비		167,000
	복리후생비		95,100
	통 신 비		697,400
"	수도광열비		199,000
	수선유지비		907,700
	식당운영비		690,200
"	합 계	31,409,070	18,820,440